주간건설 Review

559호 2018.11.2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롯데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포스코건설, 지속가능성지수 건설분야 1위에 선정
- 대우건설, 국내 최초 AR가든 도입
- 계룡건설, 희망 2019 나눔캠페인 기부 활동
- GS건설, 1포병여단에 체육공원 조성 지원
- 대우건설·GS건설, '해외건설 최우수 사례' 선정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사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확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국토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 마련
- 건설 업역폐지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롯데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11월22일 롯데건설은 하석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샤롯데 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의 '104 마을'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음



샤롯데 봉사단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고 있는 롯데건설 하석주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 롯데건설이 봉사활동을 펼친 104 마을은 1967년 용산, 청계천 등 판자촌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형성된 마을로 현재 약 1천 1백 세대가 거주 중이며 이 중 60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음

○ 이날 롯데건설은 104 마을에 3만 장의 연탄(세대당 150~200장)을 기부했으며, 지난 11월15일에는 부산지역 '매축지 마을'에서 3만 장을 기부해 올해 6만 장의 연탄을 기부하였음

○ '사랑의 연탄 나눔'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롯데건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형편의 가정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가 연탄을 기부함으로써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전달된 연탄은 '1대3 매칭 그랜트'(매달 전 임직원이 급여 일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배를 회사도 기부하는 모금제도)제도로 모인 '샤롯데 봉사기금'을 통해 마련되었음

◈ 포스코건설, 지속가능성지수 건설분야 1위에 선정

○ 11월22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로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건설분야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는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활동과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 관계자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고객 만족, 임직원 복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과 협력사 상생협력 활동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김창학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사진 왼쪽)과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오른쪽)

◈ 대우건설, 국내 최초 AR가든 도입

○ 11월21일 대우건설은 지난 9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 써밋의 단지 내 정원에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음

○ AR기술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우건설 IT실에서 자체개발한 AR 가든은 스마트폰에 AR 가든 앱을 설치하면 단지 내 정원에 있는 초목이나 벤치 등 사물에 겹쳐서 나타나는 증강현실 애니메이션을 체험할 수 있고, AR 포토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동물과 로봇, 공룡 등 캐릭터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화면 속 캐릭터와 사진도 찍을 수 있음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단지 내 벤치에 적용된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 대우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단지 내 조경과 IT를 접목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시대와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AR 가든을 개발했다며 앞으

로도 IT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주택문화 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음

◈ 계룡건설, 희망 2019 나눔캠페인 기부 활동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을 기탁한 이승찬 사장(가운데)

○ 11월20일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하여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을 기탁하였음

○ 2018년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한 나눔캠페인을 통해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계룡건설은 충청남도와 세종시에도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할 예정

○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연말 연시를 맞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기부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음

◈ GS건설, 1포병여단에 체육공원 조성 지원


비호체육공원 준공식에 참석한 허태열 GS건설 전무(왼쪽에서 세 번째)와 양태봉 제1포병여단장(네 번째) 등 관계자들

○ 11월19일 GS건설과 1사1병영 협약을 맺은 제1포병여단이 경기 고양시 제1포병여단에서 비호체육공원 준공식을 열었음

○ 제1포병여단은 지난 8월21일 GS건설과 1사1병영 협약을 맺은 이후 GS건설의 지원으로 10월부터 한 달간 공사해 비호체육공원을 완공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양태봉 여단장과 허태열 GS건설 전무를 비롯해 GS건설의 사회공헌 업무를 맡고 있는 전춘근 총무담당 상무, 제1포병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1포병여단은 이날 GS건설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음

○ 비호체육공원은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등 1452㎡ 규모로 조성되어 장병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활용할 예정

◈ 대우건설·GS건설, '해외건설 최우수 사례' 선정

○ 11월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어 GS건설과 대우건설, 유신을 해외건설시장에 모범적으로 진출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 이날 경진대회에서 분야별 최우수상은 △시공분야 GS건설 △엔지니어링분야 유신 △투자개발분야 대우건설이 각각 차지하였음

○ 이들 기업은 해외사업 진출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상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과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음

○ 이밖에 시공분야 우수상은 두산중공업과 쌍용건설이, 엔지니어링분야 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투자개발분야 우수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수상하였음

○ 한편 국토부는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여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건설사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확대

○ 금융투자협의회 채권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말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의 회사채 물량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 등 건설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 현황

- 채권정보센터 자료 분석결과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보유한 내년 회사채 만기 규모는 2조6040억원 규모로 올해 만기도래된 회사채 2조3400억원과 비교해 11.3%인 264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

<건설사 회사채 만기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	2018년			2019년			연간 증감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삼성물산	3,000	6,700	9,700	6,100	3,600	9,700	-
현대건설	1,000	900	1,900	2,000	-	2,000	100
대림산업	-	3,350	3,350	1,450	2,000	3,450	100
대우건설	1,000	-	1,000	-	1,500	1,500	500
GS건설	600	-	600	-	-	-	-600
현대엔지니어링	-	-	-	-	1,000	1,000	1,000
포스코건설	1,000	-	1,000	1,200	1,300	2,500	1,500
롯데건설	1,700	-	1,700	1,500	1,200	2,700	1,000
SK건설	1,500	1,650	3,150	1,540	-	1,540	-1,610
현대산업개발	-	1,000	1,000	-	1,650	1,650	650
계	9,200	13,600	23,400	13,790	12,250	26,040	2,640

자료 : 금융투자협의회 채권정보센터, 건설사 순서는 2018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순(順)

- 내년도 회사채 발행 환경에서 가장 큰 부담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차례, 2020년 1

차례의 금리 인상을 계획 중이어서 건설사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질 전망

- 주택경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국내 건설업과 건설투자가 부진하다는 점도 기관투자자들의 건설사 회사채 수요 하락에 따른 회사채 흥행 부진으로 이어져 회사채 발행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전망

❒ 건설사 대응 동향

- 내년부터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
- 건설사들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건설업황 하락으로 건설사에 대한 투자자의 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적기는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HDC현대산업개발(1300억원)을 비롯해 롯데건설(2000억원)과 포스코건설(600억원), 한화건설(850억원) 등이 공모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
- 내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는 점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보다는 내부에 쌓아둔 현금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커 보임

◈ 국토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 마련

○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12월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기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공기 부족 등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를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산정기준(안)의 핵심은 △준비기간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정리기간 등으로 구분해 적정 공기를 산정하는 것

○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공기 산정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할 예정

<주요내용>

❒ 준비기간

-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비작업 일수

-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토록 함

❒ 작업 일수

- 작업 일수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할 예정

❒ 정리기간

-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 중

❒ 기타

- (공기연장 사유 명시 등) 국토부는 공기연장 사유를 명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산정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
- (공사 여건 반영) 군 작전지역이나 도서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악지형

등은 공기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공사 여건을 공시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100억 이상 공사의 공기 적정성 심의 등) 총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입찰서류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

◈ 건설 업역폐지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11.7)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등 건설 업역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내 건설산업 업역 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반영돼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1월20일 환경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는 총공사비의 3%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때 총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검토내용을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하여야 함

❒ 사업착공 통보 등의 공개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착공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평가대상 지

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함